코나미컵 일본 니혼햄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삼성 라이온즈 투수들이 경기가 열릴 도쿄돔구장에서 수비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결승행, 중국전이 보약

中 코나미컵 최약체… "큰 점수차로 선수 기살리기 기회"

아시아 프로야구의 왕중왕을 가릴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 2006'에 참가한 삼성 라이온즈의 예선리그 두 번째 상대인 중국 대표팀은 최약체로 꼽힌다.

삼성은 9일 치를 재팬시리즈 챔피언 니혼햄 파이터스와 첫 경기에 이어 10일 낮 12시30분 중국 드림팀과 예선리그 2차전을 갖는다.

중국프로야구리그(CBL)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대비해 2002년 출범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기량은 삼성이나 니혼햄, 대만프로야구리그(CPBL) 통합 우승팀 라뉴 베어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지난 3월 야구 월드컵으로 불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했던 중국은 현격한 실력 차를 절감하며 참담한 패배를 경험해야 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거 등 최고의 선수들로 꾸려진 일본 대표팀에 2-18, 8회 콜드게임을 당했고 한국에 1-10, 대만에 3-12로 고배를 들었다.

2년째 참가하는 삼성으로서는 우승 길목에서 기세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국의 중국전 상대 역대 전적은 9전 전승. 지난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9-2로 승리한 이후 WBC 대승까지 모두 완승을 거뒀다.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기에 몇 점차로 승리하느냐가 관심사다.

메이저리거 출신 짐 르페브르(64) 감독이 이끄는 중국은 20대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다.

마운드에서는 WBC 대표로 출전했던 천쿤(26)과 리홍루이(20), 부타오(23), 황취안(23), 천웨이(23) 등이 눈에 띈다.

2005아시아선수권대회 때 '한국 킬러'로 활약했던 왕난을 제치고 한국전 선발 중책을 맡았던 우완 첸쿤은 WBC에서도 한국전에 선발로 나섰지만 이승엽(요미우리 자이언츠)에게 선제 2점 홈런을 두들겨 맞고 패전 멍에를 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백인천 전 삼성감독 코나미컵 해설자로

삼성 시절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을 거포로 키워 낸 백인천 전 삼성 감독이 제2회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에서 마이크를 잡고 현장에서 생생한 해설을 펼친다.

올해 케이블채널 SBS 스포츠를 통해 일본 프로야구 해설을 맡기도 했던 백 전 감독은 이번 아시아시리즈 중계를 맡은 케이블 종합오락채널 tvN의 해설자로 오랜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한다.

백 전 감독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해설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생 채널인 tvN은 9일 삼성과 니혼햄의 1차전(KBS 2TV)을 제외하고 10일 삼성-차이나 스타스전(12시30분), 11일 삼성-라뉴 베어스전(오후 7시), 12일 결승전(오후 6시)까지 총 3경기를 생중계하기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합의했다.

'살기좋은 광주 만들기 걷기대회' 열린다

11일 상무시민공원

제 1회 '지역혁신박람회 기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한마음 걷기대회'가 오는 11일 오전 9시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걷기대회는 7~12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를 기념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광주 만들기 일환으로 열린다.

이번대회 코스는 상무시민공원을 출발, 광주시청, KBS 방송국, E마트, 상무병원을 반환점으로 다시 상무공원으로 돌아오는 4㎞코스를 걷게된다.

참가자격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대회 식전행사로 자전거연합회의 자전거 묘기시범과 생활체조연합회의 생활체조 시연이 열리고, 부대행사로 페이스페인팅, 자가 건강 진단 코너와 우리 지역 쌀 홍보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걷기 코스별로 거리 사진전, 포토존, 내나무 돌보기, 참가자들이 직접 바람개비를 부착하는 화합의 바람돌이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이외에 걷기행사 후에는 선착순 7천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고 혁신 O,X퀴즈를 통해 행운권 추첨도 열린다.

오주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초석은 건강한 시민이다"며 "광주생활체육협의회는 앞으로도 건강한 1등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 황연주(오른쪽)가 8일 일본 나고야 종합운동장 레인보우홀에서 열린 2006세계선수권 대회 2라운드 세르비아-몬테네그로와의 E조 첫 경기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이날 0-3으로 완패했다. /연합뉴스

장채근 전 코치 호랑이 유니폼 다시 입나

日 연수후 귀국… 친정팀 복귀 관심

홀연 일본 연수를 떠난 장채근 전 KIA 코치(42)의 친정팀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KIA와의 계약이 끝난 뒤 6개월 과정으로 일본 연수길에 올랐던 장 전 코치는 현재 광주에 머무르고 있다.

장 전 코치는 지난 2월부터 6개월동안 일본 프로야구 라쿠텐 골든이글스에서 연수를 받은 뒤, 국내로 돌아왔다.

KIA 시절 선수와 코치를 거치면서 터득한 실전 경험과 일본에서의 야구 공부는 장 전 코치의 능력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이에따라 벌써부터 몇몇 구단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는 '야인' 신분이다.

선진 야구를 경험하기 위해 일본 연수까지 받고 돌아온 장 전 코치로서는 당연 현역 복귀를 노릴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선 KIA로의 회귀가 유력하다.

1986년 KIA 전신 해태에 입단, 장타력을 갖춘 포수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던 장 전 코치는 '타이거즈맨'으로 통한다. 선수와 코치를 합쳐 20년 동안 호랑이 밥을 먹었다.

조만간 KIA에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가 제법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하지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장 전 코치가 지난해 KIA를 떠난 과정이 그리 매끄럽지 못했던 탓이다.

이와 관련, 정재공 KIA 단장은 "코칭스태프 조각은 감독의 고유권한이다. 장 전 코치뿐 아니라 어떤 코치를 영입하더라도 감독의 찬성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구단 내부적으론 영입할 계획은 없다"며 장 전 코치의 컴백설을 부인했다.

/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독일 월드컵 결승 볼 22억5천만원에 낙찰

2006 독일월드컵 축구 결승 이탈리아-프랑스 경기에서 사용됐던 공인구가 경매에서 240만 달러(약 22억 5천만원)에 낙찰됐다고 AFP통신이 8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발로 보도했다.

프랑스를 승부차기 끝에 이기고 우승컵을 차지한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사인이 담겨 있는 이 공은 카타르 왕족 셰이크 모하메드 빈 하마드 알-타니에게 돌아갔다.

알타니는 내달부터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동안 도하에 있는 '어스파이어 아카데미'에 이 월드컵 공인구를 전시할 예정이다.

알타니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월드컵 결승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았다. 그래서 이 공은 내게 그 때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가치를 갖는다"면서 "젊었을 때부터 이탈리아 팀을 응원해 왔다"고 말했다.

스포츠중계

9일(목)

▲제16회 대륙간컵 야구대회〈한국-필리핀〉(14 : 00·KBSN SPORTS)

▲코리안투어 하나투어-몽베르투어 챔피언십 1R(14 : 10·KBC)

▲FIVB 세계 여자배구 선수권〈한국-이탈리아〉(14 : 50·Xports)

▲프로야구 아시아 시리즈〈한국-일본〉(17 : 50·KBS2)

▲AFC 청소년 축구 선수권 준결승〈한국-일본〉(19 : 20·Xports, SBS스포츠), 〈요르단-북한〉(22 : 20·Xports, SBS스포츠)